

경계 너머, 공유가치: 로컬포스트

김미련 _로컬포스트 대표

1. 로컬 포스트의 결성



『로컬 포스트』,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스, 2013

거나 넘는 멀티미디어작업과 소통과 통합에 관한 예술교육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로컬 포스트>에게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네트워크-이미지’는 주요한 방향이었다. 초기에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김미련, 김안나, 오정향과 카바레티스트 김주권, 애니메이터인 손영득과 현대사진가 황인모, 현대무용가 안지혜, 생활예술가 정진석, 피아니스트 최훈락과 설치미술가 노아영, 이승현작가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였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게스트예술가를 초대하였다.

2015년에는 애니메이터인 방정호, 안주영과 미디어아티스트 권혁규가 결합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멤버들의 교체가 있어왔고, 김미련, 김주권, 노아영, 방정호, 손영득, 오정향, 정진석, 황인모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로컬 포스트>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동시대 예술을 혼성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주목했다. 이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이 요구된다. 작가들은 <로컬 포스트>를 통해서 각자의 작업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미디어의 다원적 결합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예술적 실험은 국가, 지역, 그리고 의제가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경계를 넘어서 전 방위적으로 예술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을 주목했다. <로컬 포스트>가 대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지만, 독일의 뒤셀도르프와 베를린, 프랑스의 노르망디 같은 유럽의 작가들과 접촉하여 예술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전혀 무관한 지역의 생활예술과 일반인들의 삶을 결합하는 공동체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삶과 접속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2012년 7월 대구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온-오프라인에서 이주 형태의 삶과 예술을 연구하고, 전통적인 예술프레임을 깨고 다양한 예술언어를 교직하는 <로컬 포스트 컬렉티브>를 결성하였다. 창립 초부터 1인 미디어시대의 모마드(모바일과 노마드의 합성어)의 수행적 지대를 찾아나가는 다원예술과 소셜미디어아트, 공동체예술의 세가지 영역에서 예술과 예술, 지역과 국경, 예술가와 관람자의 경계에 서

2. 로컬 포스트의 활동

<로컬 포스트>의 활동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로 다른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하는 장르 간 협업 작업이다. 인터랙티브 기술과 영상 애니메이션의 결합, 성악과 현대무용의 결합, 관현악과 영상 애니메이션의 결합, 등 다원예술 영역으로 분류되는 예술실험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실험영상 인터랙티브 작업은 공공 공간의 예술축제현장에 설치되어 많은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강정 라이딩, 2015), 또한,



『강정 라이딩』,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대구강정현대미술제, 2015
<https://youtu.be/URbbQQUxZXY>



『2019 도입시더 (Do it Theater)디지털 지신밟기』, 미디어 퍼포먼스, 대구예술발전소
https://youtu.be/8lvbmbd_uWI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벌어진 전시공간에서의 성악과 무용, 카바레트와 미디어아트의 결합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주로 미술 작품 전시만 소개되는 화이트큐브가 블랙박스로 탈바꿈하기도 하였다.(Do it Theater, 2013) 특히 라이딩(Riding)시리즈와 도입시더(Do it Theater)시리즈는 연작형태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더 탄탄한 개념과 공학적 기술력, 디테일한 3D영상물, 카바레트와 결합되어 구현된 『2019 도입시더 (Do it Theater), 디지털 지신밟기』는 2019년 대구예술발전

소 5층에서 다원예술의 형식으로 공연되었고 완성도와 대중성을 함께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입시더 Do it Theater'는 영남지역 공동체 문화의 원형인 '지신밟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현대판 씻김굿을 '마을을 돌면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이다. 2013년 초기형태가 2016년과 2019년에 변주를 거듭하여 '디지털 지신밟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포스트 디지털의 세계에서 4차산업사회,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노동, 플랫폼 자본주의 등 단어만 바뀌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자본주의는 가상과 실체의 혼합을 통해 소통과 공통성(commonality)을 확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오히려 시장의 독점과 개별화, 파편화, 노동의 통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지신밟기 버전의 '도입시더 Do it Theater'는 지역 6곳의 아젠더를 무대 위로 올리고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고자 하였다. 관객참여적인 퍼포먼스와 놀이, 체험을 통해 관계지향적인 공동체의 미덕

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셋김굿을 시도하였다.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에서 2019년 지역의 스트리트댄스 크루 <소울 마켓>과 협업한 작품「A Walk to」는 2015년 대구강정현대미술제에서 선보였던 「강정 라이딩 Gangjung Riding」의 자전거 라이딩에서 트레이드밀로 설치구조와 연동기술의 변화를 꾀하여 역동적인 안무와 인터랙티브 미디어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통적인 콘서트홀에 실험영상을



「A Walk to」,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북구어울아트센터, 2019

<https://www.facebook.com/junghyang.oh/videos/2195189780550255/>

소개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친구 건축가 빅토르 하르트만을 기리기 위해 쓴 피아노, 관현악 모음곡<전람회의 그림>을 패러디한, 피아노 연주와 영상 이미지 프로젝션 실험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2013」이 대표적이었다.

이런 작업들이 예술계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실험이라면, ‘전방위예술행동네트워크’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에 해당된다. 이 실천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동시대적인 예술실험을 지향하고 있다. <로컬 포스트>가 함께하고 있는 예술행동네트워크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의제(환경, 재개발, 평화, 세월호, 표현의 자유 등)를 포괄해 왔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예술행동 네트워크는 청도 삼청리 송전탑 반대예술행동



「송사영신 送THAAD迎新」展,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2층, 성주, 2017

(2014),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민주주의 컨테이너 프로젝트 (2012, 2014), 성주 소성리에서 <미디어로 행동하라>팀과 청년사진가그룹, 소성리주민들과 연대한 사드배치반대예술행동(2017), '동인 동인 東仁同人', _linked(2018~2019)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문래동의 대안공

간 이포에서 열렸던 옥상의 정치(2014), 세월호 예술행동(2014), 성남의 제1회 저항예술제(2015)와 같은 정치적인 문화행사나 지역의 자립예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아트클럽 삼덕(2015))에도 적극

참여하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제안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4번째로 오래된 근대아파트인 나선형구조의 계단양식을 가진 대구시 중구 동인아파트의 재개발전 2년 동안의 예술 아카이브프로젝트는 그룹<동인동인 東仁同人>과 함께한 예술행



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 것이다. 동인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건축물이 지닌 상징성과 주변지역의 역사성이 뒤섞인 공간에 대한 탐사와 함께 도시 공간, 삶, 예술과의 다른 관계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예술가그룹 <동인동인 東仁同人>과의 기획과 협업은 도시생태 탐구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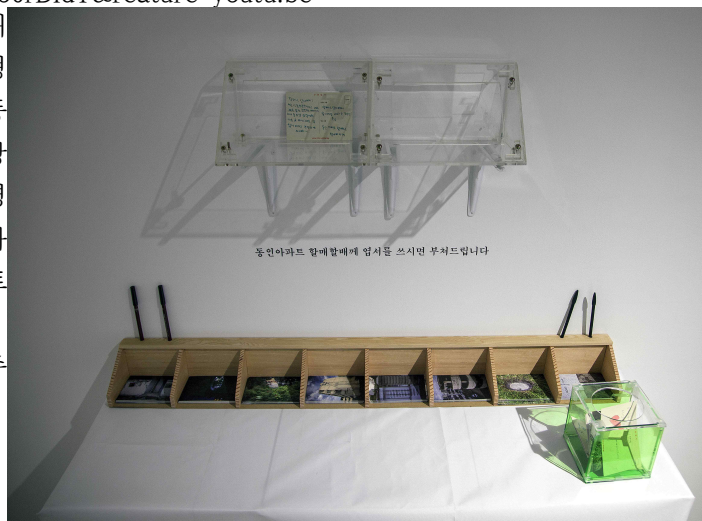
「미디어파사드 <마을이동극장>」, 동인아파트 3동 나선형계단,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C_X850rDIdY&feature=youtu.be

활동 즉 동인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생태연극, 메가폰 슈퍼레히콜, 미디어파사드형식의 마을이동 극장, 아파트주민잔치, 동인아파트 현장전시 등의 장소특정적인 상황주의예술의 실천이다. 지역의 미술비평가이자 개념미술이론가인 김기수철학박사는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프로젝트에 대해 그의 논문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어바니즘, 미술행동,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공동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고, 시민 관객들에게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브랜드화가 필히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과 다수 주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는지를, 따라서 민주적 시민공동체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인지하게 하고, 대안적 도시공동체의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출처:김기수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어바니즘, 미술행동, 민주주의』, 『인문연구 제90호 1호』, 2020, 212쪽



「동인아파트 아이들의 8경」, 사진엽서(김미련),엽서쓰기진행(민승준),2018-2019

<로컬 포스트>는 문화예술과 미디어아트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소통과 협업을 개념으로 범어도서관(2019)의 ‘상상을 표현하다’ 무빙이미지 교육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북구행복문화재단의 어울아트센터에서 ‘미디어세상에서 미술로 놀기1.2’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학술, 발간사업에서는 「도시의 산책자_공동도시.기억.생태」展 _ 세미나」집을

전시도록과 함께 발간하였다. 또한 로컬 포스트의 홈페이지(<https://www.localpost10.com/web>) 웹을 통해 다원예술과 미디어아트, 영화비평에 관한 아티클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의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이었다. ‘벽을 미디어아트로 채우다’라는 주제아래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고양시켜 실제 실연해보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을 통해 그림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실연하고 전시하였다. 2021년에 진행한 「우리동네 AR 세가지 색 이야기」는 구도심에 위치한 대구최초시영아파트 동인아파트와 동인동일대가 재개발로 사라지는 상황아래 동인동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을 공유하고자 증강현실지도를 제작하였다. GPS기반의 AR증강현실 마을지도를 통해 사라질 동인동의 역사를 스마트폰, 웹상에서 실시간 열람가능하도록 온라인아카이브_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남아 사라진 마을을 소환해볼 수 있고 더 많은 기억들을 추가적으로 아카이빙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동네 AR 3가지 색 이야기」

극장 AR 구현모습, 2021

<https://neolook.com/archives/2021122j>

3. 로컬 포스트의 과제

21세기형 아방가르드란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작가적 태도와 내용, 형식을 아티스트컬렉티브를 통해 담아내려 한다. 개인이 살아있는 집단, 공존과 가치의 공유, 상생이 가능한 공동체의 이상을 향해 질문하고 연구하며 나아가자 한다.